

HI FX Brief

고삐 풀린 원화, 잡을 수 있다

FX Brief

[경제] 박상현 2122-9196 shpark@imfnsec.com

주간 동향: 달러-원 환율,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

- 보험세를 보이던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됨. 미국-이란간 종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5월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에 따른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감 강화 및 미국 증시 조정 등이 달러화 강세폭을 확대시킴
- 보험권에서 등락하던 유로화는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1% 이상 하락함
- 달러-엔 환율이 다시 160엔대에 진입함. 달러 강세 영향과 더불어 160엔 수준에 예상되던 일본 정부의 시장개입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달러-엔 환율이 다시 160엔대 진입함
- 위안화 가치는 소폭 하락함. 위안화 흐름을 영향을 줄 재료 및 경제지표 부재 속에 달러 강세 영향으로 위안화 가치가 소폭 하락함
- 호주달러는 큰 폭으로 하락함. 글로벌 주요국 국제 금리 반등과 달러 강세 영향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면서 호주달러도 하락함
- 달러-원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,550원을 돌파함. 달러 강세 영향,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순매도 및 미온적인 정부의 시장개입 영향으로 원화 가치가 예상외로 급락함

	6월 5일 증가	전주 대비 (%)	전년말 대비 (%)
달러화 지수	100.1	1.14	1.78
유로-달러	1.152	-1.18	-1.91
달러-엔	160.3	0.64	2.28
역외 달러-위안	6.79	0.40	-2.65
호주달러-달러	0.70	-1.91	5.62
달러-원	1,559.0	3.60	7.92

달러-원 환율 증가는 익일 2시 기준

금주: 고삐 풀린 원화를 제어할 재료가 부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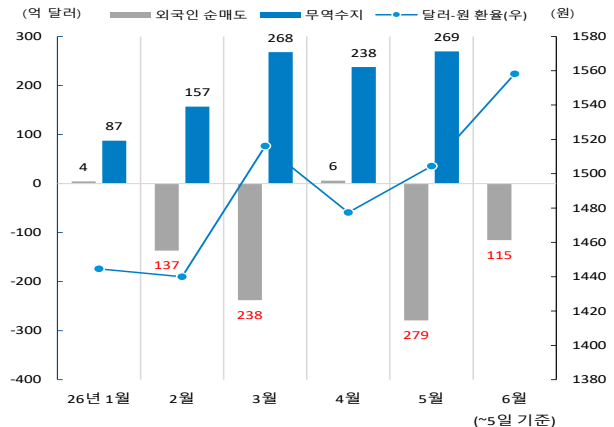
- 반도체 주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증시 조정, 즉 위험자산 선호 심리 약화 속에 미국 5월 소비자물가에 대한 경계감 등이 달러화 추가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. 여기에 미국-이란간 종전 협상 불확실성 지속도 달러 강세를 부추길 수 있는 재료임
- 달러 추가 강세 우려 속에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에 따른 수급 우려 지속 등이 달러-원 환율의 추가 상승 압력임. 정부의 시장개입이 추가 상승 속도를 제어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달러-원 환율의 하락 압력을 높일 재료는 부재함. 이란 불확실성 리스크 지속도 달러-원 환율에 부담 요인임
- 금주 달러-원 환율 밴드는 1,530~1,590원으로 예상함

그림1. 반도체 주가 조정과 유가 불안 지속 등은 원화 약세 압력을 높이는 재료

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2.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 주식 순매도 압력이 달러 수급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음

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Compliance notice

-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 -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